

김남훈

변호사

상법

변호사시험대비
강의계획서

사례형 첨삭

- 선택형 대비를 위하여 판례에 대한 이해 및 암기
- 사례형 대비를 위하여 답안작성법의 체득 및 연습
- 기록형 대비를 위하여 기록형 쟁점에 대한 학습
- 각자 기본서를 통한 예습과 사례형 답안작성연습
- 출제예상쟁점에 대한 강평과 과외식 1:1 대면첨삭
- 각자 기본서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실력향상

일 정

2018. 5. 25(금) ~ 6. 4(월), 총 9 회, 월~토, 오후

시험 오후 2시 ~ 오후 3시

강의 오후 3시 10분 ~ 오후 4시 40분 (휴식 없이 90분 수업)

대면첨삭 오후 5시 ~

※ 매주 목요일은 시험+강의만 진행하고 대면첨삭은 없습니다.

※ 복습용 '키워드 암기장' 자료를 제공합니다.

교 재

- Essential 상법 핵심암기장(제3판)
- 어음·수표법 보충사례(제공)

주 의 사 항

- 모집정원(15명)이 마감될 경우에는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 대면첨삭 순서 선정 및 기초자료 작성은 개강일 강의 후에 진행됩니다.

L A W S C H O O L

상법 사례형 모의시험 첨삭

F A Q

Q1.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의 출제경향은 어떠한가요?

- A1. (i) 상법 선택형은 총 70문제 중에서 평균 2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20문제 중에서 회사법이 1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되는 지문도 판례의 태도를 묻는 전형적인 선택형 문제부터, 상장회사의 특례조문이나 상법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 (ii) 사례형은 총 350점 중에서 100점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경향을 보면 100점 중에서 70점 ~ 80점 정도는 전형적으로 중요한 예상문제 또는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주로 회사법 부분이 출제되고 있지만,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협의회 모의시험에서는 보험자대위의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 (iii) 기록형에서는 매년 상법의 중요한 쟁점이 한 가지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양도, 상사매매, 전단적 대표행위, 표현대표이사, 백지어음, 주주대표소송,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등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록형에서 상법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사례형 모의시험 강의의 진행방향은 어떠한가요?

- A2. 각자 기본서에 의한 예습 → 실전용 답안작성 → 과외식 대면첨삭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i) 각자 기본서 등으로 진도에 맞추어 예습을 합니다. 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반드시 예습을 하고 시험에 응해야 합니다. 예습을 해야 본 과정을 통하여 상법 3회독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응시하고, 반드시 답안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ii) 출제예상 사례형 쟁점에 대하여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답안을 작성하고, 당해 진도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쟁점에 대한 강의를 수강합니다. 출제 문제는 “Essential 상법 핵심암기장(제3판)”에 수록된 문제 중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예습시간에 본 교재는 예습하지 말고, 복습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0분의 강의로 본 교재의 중요 내용을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어음수표법에 대한 사례자료로 어음수표법에 대한 출제예상 쟁점을 학습할 것입니다. 답안작성은 정확하게 시간을 준수하여 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하고, 반드시 제출하여 강평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상법 사례형 모의시험 첨삭**

F A Q

- (iii) 김남훈 변호사와 1 : 1 과외식 대면첨삭 과정을 진행합니다. 답안지는 전문첨삭자가 1차 첨삭을 하고, 김남훈 변호사가 정밀첨삭을 합니다. 대면첨삭 시간에는 개인별 답안작성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개선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해당 진도에서 각자 기본서 등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의문점(어떠한 교재 내용이라고 무방)을 질문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매 회차별 점수와 취약점 및 개선점과 성취도 등은 별도의 자료로 정리하여 개인별로 관리할 것입니다(학원 종합반 모집 안내 팸플렛 샘플 참조). 고득점 답안작성을 위한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모두 향상시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과정이 종료되면 본인 스스로 답안작성의 형식과 내용이 향상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Q3. 김남훈 변호사의 대면첨삭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A3. 수험생이 2019년 1월 시험장에서 작성할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지를 만약 10명이 채점을 한다면 그 중 7명은 실무가 출신 교수 또는 현직 실무가입니다. 따라서 실무가들이 원하는 형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가들이 작성하는 서면은 비실무가들과는 다른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 김남훈 변호사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고 있는 실무가 강사이므로, 출제자와 채점자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김남훈 변호사는 실무가 출제진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효율적인 대면첨삭을 진행할 것입니다. 본 과정을 통하여 인연을 맺게 되는 분들에게 채점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훈 변호사가 책임을 지고 답안작성의 고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F A Q

Q3. 기본서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데 수강할 수 있지요?

A3.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수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답안작성연습입니다. 기본서 학습만으로 실력을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의 변호사시험이 끝난 이후에 발표 때까지 제대로 공부를 못하였다고 하여도, 제8회 시험이 7개월 정도 남아 있는 현재 시점에서 다시 기본서에 밑줄을 치면서 기본서 내용 위주로 학습하는 방법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아닙니다. 각 과목에 할당된 시간이 1개월 정도이어서, 기본서 읽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최신 판례 정리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실전용 문제를 연습하면서 그 쟁점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자신이 보던 기본서를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실전용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답안을 작성해보고, 대면첨삭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취약부분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Q4. '키워드 암기장'이란 무엇인가요?

A4. 수험생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답안지에 적힌 내용뿐이므로, 학습한 지식을 정확하게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 답안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 답안지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키워드를 암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이러한 판례에 대하여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는 ~~와 같은 방식으로 답안지에 서술해야 하니, ~~문구로 암기하리”는 식으로 강의할 것입니다. 복습 시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의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와 암기할 문장을 정리하는 용도로 ‘키워드 암기장’을 매일 제공할 것입니다.
- 본 자료는 제가 수험생 시절부터 틈틈이 정리하던 자료이고, 본 자료로 저 또한 고득점 합격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마무리 교재로 활용하였고, “답안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가 많았던 자료입니다. 믿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암기장에 수록된 판례문구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고득점 답안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상법 사례형 모의시험 첨삭**

F A Q

Q5. 강의 내용의 변시에 대한 적응률은 어떠한가요?

A5. 다음은 제5회 변호사시험에 기출된 문제와 이를 적중한 김남훈 변호사의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비교한 것입니다.

[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A회사는 최근 투자 실패로 인하여 거액의 손실을 보아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이사某甲은 이를 감추고 사옥매각대금으로 확보한 2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 안을 작성하였다. A회사 이사회는 전원찬성 결의로 이 배당 안을 승인하였고, A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배당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A회사의 채권자 Y는 5천만 원의 채권을 변제기에 변제받지 못하였다.

<문제>

4. Y는 위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A회사 주주들 및 이사에 대하여 「상법」상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30점)

[2015 상법 진도별 모의고사 제7회 문제]

○ A주식회사는 2015. 5.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인 P의 주도하에 이익배당에 대한 결의를 하여 배당하였다. 그 당시 A주식회사의 총자산은 80억 원, 부채는 50억 원, 자본준비금 5억 원, 이익준비금 8억 원, 미실현이익은 12억 원, 주식의 액면가 1만 원, 발행주식총수 5만주이었다.

<문제4>

위의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A주식회사의 채권자 M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점)

- 지금까지 상법에 출제된 쟁점은 대부분 수험가에서 중요하다고 예상되는 쟁점들이었습니다. 다만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 제4번 문항은 수험가에서 출제를 예상하지 못했던 소위 ‘불의타 문제’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남훈 변호사는 이 쟁점은 사례형으로 출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하는 쟁점이라고 단권화 강의시간부터 강조하였고,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에 의한 예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남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쟁점을 적응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김남훈 변호사의 출제 예상이 또 다시 100% 적중하였다는 것을 내년 시험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상법 사례형 모의시험 침삭**

F A Q

Q6. 수강생에게 당부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6. 메리츠 자산운용 최고경영자인 John Lee 대표이사는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일을 이미 이룬 사람을 찾아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합격을 원하신다면 김남훈 변호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남훈 변호사에 대한 믿음과 합격에 대한 열망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남훈 변호사가 제시하는 방법만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위해 필요한 나머지는 김남훈 변호사가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합격을 위하여 필요한 민사법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 제7회 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제8회 시험에서도 민사법 전 과목과 전 영역에서 최고의 적응률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단순한 “Teaching의 과정”이 아니라 “Coaching & Mentoring의 과정”을 통하여, 김남훈 변호사와 함께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 중의 하나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삶의 무대에서 몰아치는 파도와 만나면

누구나 주저앉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파도가 나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

두 손에 꼭 쥐 열정을 놓치지 않는다면

열정으로 벅찬 가슴을 믿는다면

그 무대는 온전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 국립발레단 단장 강수진, 한걸음을 걸어도 나답게 -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를 계획서

상법 사례형 모의시험 첨삭

강의진도표

회 차	일 정	시험범위
1	5. 25(금)	상법총칙 / 상행위법
2	5. 26(토)	회사법총칙 / 주식회사의 설립
3	5. 28(월)	주식과 주주1
4	5. 29(화)	주식과 주주2
5	5. 30(수)	주식과 주주3
6	5. 31(목)	주식회사의 기관1
7	6. 1(금)	주식회사의 기관2
8	6. 2(토)	주식회사의 기관3
9	6. 4(월)	신주와 사채 / 어음수표법 사례문제 풀이